

2026년 7월

“Jony’s Journey”

조니 & 수진 — 팀 익스팬션 말레이시아

The Disciple Blueprint · Bible Mission Services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의 미전도 종족 가운데 제자를 배가합니다



2026년 7월 “하나님께 큰 것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해 큰 일을 시도하라.” — 윌리엄 캐리

1 감사의 고백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달 저는 캄풍에서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에서 설교했습니다.

7월 9일부터 수진과 저는 영국에서 22일을 보냈습니다. 그중 여드레는 호즈던의 하이 레이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커넥트 2026 선교대회였고, 미국과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에서 온 약 230명의 선교사와 함께했습니다.

배우러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우정과 초청, 그리고 지금도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몇 가지 이야기를 안고 왔습니다.

그중 세 가지를 나눕니다.

2 7월의 세 가지 이야기

영국 강단에 선 말레이시아 사람

어느 주일 아침, 저는 왓포드 세인트 루크 교회 강단에 섰습니다. Rev Mi. 목사님과 성도들 앞에서, Pa.와 Ji.가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낯선 일인지 함께 느껴 보시기 바랍니다.

이백 년 동안 영국은 아시아로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이제 아시아의 한 목회자가 영국 교회에 서서, 말레이시아 오랑 아슬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전하며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분위기는 따뜻했습니다. 예배 후에도 사람들이 남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몇몇은 소식을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훈련받을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선교지는 더 이상 “저 멀리”가 아닙니다. 이제 그 길은 양방향입니다.

여행 후반에는 존 웨슬리 채플과 스펔전의 메트로폴리탄 태버네클을 방문했습니다. 불이 처음 붙었던 그 건물 안에 서 있었습니다 — 결국 제 땅에까지 이른 바로 그 불입니다.

그곳에 서서 아주 단순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웨슬리와 스펔전은 사람 수를 세어 운동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평범한 사람을 훈련시켜 내보냄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하려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엘리샤 — 사흘, 그리고 떨어지지 않은 질문

엘리샤는 런던에서 살며 일하는 말레이시아 자매입니다.

우리는 사흘 동안 런던과 옥스퍼드를 함께 다녔습니다. 긴 기차 여행. 긴 대화. 한 시간짜리 만남으로는 나눌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서로 믿음을 나눴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늘 던지는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런던에 보내신 이유가 직장 하나뿐일까요?

엘리샤는 주메(Zúme) 제자훈련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런던은 그곳 공동체의 언어로 말하는 제자 삼는 사람 한 명을 얻게 됩니다.

- **엘리샤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익숙한 자리에서 나올 용기를 얻고, 지금 살고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도록.

알렉스 형제 — 아무도 박수치지 않은 이십 년

대회에서 알렉스라고 부를 한 형제를 만났습니다.

그는 이십 년 동안 네팔을 위한 성경 번역을 해 왔습니다. 뒤에서 하는 일입니다. 무대도, 사진도, 박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생을 네팔 사람들에게 드리려 합니다.

저는 그와 마주 앉아 말레이시아 사역을 나눴습니다. 그는 올해 말 일정이 허락되면 우리를 방문하는 것을 이야기할 만큼 관심을 보였습니다.

우리의 제자훈련 자료도 그의 손에 전할 것입니다. 프로그램을 운영하라는 뜻이 아니라, 이십 년을 쏟아부은 그가 자신의 신앙을 다시 채울 무언가를 갖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보이지 않는 이십 년은 결코 작은 사역이 아닙니다. 언젠가 네팔의 누군가가 요한복음 3장을 자기 언어로 읽게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더 많은 분들

이름을 다 적을 수 없을 만큼 좋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 분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 페츠 우드 교회의 중국과 홍콩 출신 목회자들 — 하나님께서 아시아 성도들을 영국 전역에 흠으신 데는 이유가 있음을 보여 줍니다.
- 플리머스의 Si와 Li. — 우리를 맞아 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 Pa., Ji., Alex, Ch., Rev Mi., Ps Lu., Ma., Jo., Me., An., Ka. — 그 외 많은 분들.
- 영국 전역의 감리교, 침례교, 성공회 지도자들 — 여러 분이 훈련에 대해 계속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여섯 줄로 보는 7월

영국 체류 일수 (7월 9일부터)	22
커넥트 2026 참석 일수 (하이 레이, 호즈던)	8
대회에 모인 선교사 수	약 230
주일 설교 — 왓포드 세인트 루크 교회	1
말레이시아에서 계속된 주메 그룹	4
교류한 영국 교단	성공회 · 감리교 · 침례교

숫자는 적게, 그리고 정직하게 유지합니다. 위의 이야기들이 그 숫자의 실제 내용입니다.

3 그동안, 고국에서는

이번 달 제가 가장 조용히 감사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7월 대부분을 떠나 있었습니다. 훈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 개의 주메 그룹이 네 가지 언어로 계속 모였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없어도 되는 현지 지도자들이 이끌었습니다. 우리가 세우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 선교사가 비행기에 있어도 계속되는 사역.

주메 중국어 — 신규 그룹 (6월 16일 시작)

- 학생 14명 — 중국 9명, 말레이시아 5명.
- 인도자: 수진, Jo.

주메 광둥어 — 진행 중

- 현재 35명 훈련 중.
- 인도자: Dr. Lo., An., Ma., Er.

주메 영어 — 진행 중

- 동네 카페에서 대면으로 모이는 3명.
- 인도자: Em., Ch., Ma.

주메 말레이어 — 리더십 네트워크

- 인도자: Ka., Sa., Za., Be.
- 페락주 캄파르와 울루 캄파르에서 25명의 지도자와 구성원을 돌봄.

4 기도 제목과 다음 단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 엘리샤를 위해 — 런던에서 주메 훈련을 시작하고 그곳에서 제자 삼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 알렉스 형제를 위해 — 보이지 않는 이십 년을 더 감당할 힘과, 올해 말 방문이 이루어지도록.
- 영국에서 맺은 우정을 위해 — 훈련에 관한 대화가 실제 훈련이 되도록.
- 네 개 언어 그룹을 위해 — 이끄는 지도자들의 인내와 하나 됨.
- 수진과 저를 위해 — 긴 여정 후의 쉼과 회복.

다음 단계

- 바투 파향에서 새로 훈련받은 지도자들 후속 양육 — 3/3 그룹 형성 시작.
- 6월에 결신한 다섯 명의 새 신자를 믿음의 첫걸음에서 세워 가기.
- 중국어 그룹(중국 + 말레이시아)의 첫 전 과정 완주.
- 파타니 침례교회와 함께 남부 태국 사역의 다음 단계 모색.
- 인도네시아(메단) 파송을 위한 준비 지속.
- 페락주 고펡에서의 주메 심화 훈련 준비 — 2026년 11월 3-6일.

맺음말

말레이시아의 작은 사역이 정말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번 달 저는 웨슬리의 채플과 스펠전의 강단 그늘에 섰고, 그다음에는 런던에서 한 말레이시아 자매와 기차에 나란히 앉아 한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둘 다 같은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함께 걸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는 모든 그룹, 기차에서 나눈 모든 대화, 아무도 박수치지 않는 이십 년의 조용한 수고 — 그 모든 곳에 여러분이 함께 있습니다.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에베소서 3:20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조니 & 수진 · Bible Mission Services · 2026년 7월

함께해 주십시오

기도가 첫 번째 동역입니다. 이 글을 읽고 기도하셨다면 이미 드리신 것입니다.

연결, 후원, 초청: linktr.ee/jonyleong

이메일: aibiblemission@gmail.com · 왓츠앱: +6013-259 0017